

에서의 성격을 생각해 보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된다. 우리는 에서를 잘 모른다. 잘 나누지 않는 다. 욕심 많고 파란만장한 야곱이 보는 재미를 더 주기 때문이다. 에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많지 않다. 장자의 명분을 버린 사람. 잔뜩 겁을 먹고 찾아온 동생 야곱을 ‘쿨’하게 안아 준 형. 이정도? 에서는 왜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을까.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에서의 ‘성질머리’와 내 ‘성질머리’는 얼마나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정말이지, 자식이 귀한 집안이었다. 아브라함은 백 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 간구한 끝에 이란성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앞으로 살아갈 삶을 예고라도 하듯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이름대로 움켜쥐며 살았다. 형제는 생김새부터 달랐고 성격도 닮은 구석을 찾기 어려웠다. 에서는 들판을 누비며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집안에서만 살았다. 이러니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할 수 밖에.

어느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침 야곱은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야곱이 죽을 수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창세기 25:29-30

음식의 종류가 무엇인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성질 급한 에서에게 눈 앞의 음식은 그저 ‘그 붉은 것’이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나보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창세기 25:31-32

심히 피곤했어도 죽어가는 것은 아니었을텐데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가 무슨 소용이냐며 야곱이 만든 ‘그 붉은 것’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맹세도 했다. 에서가 음식을 먹는 장면이 유난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야곱이 떡과 팔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던더라**
창세기 25:34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여기서 에서의 성격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직접 해보라. 떡과 뜨거운 죽을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 사건의 결론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점이다.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더 많이 물려 받는다.

에서는 들사람이었다. 전쟁이 일어나면 유능한 장수, 타고난 싸움꾼, 만능 스포츠맨. 못하는 운동이 없고 저분 적도 없는 사람. 힘으로는 어디서도 밀리지 않는 사람. 한 마디로 ‘자신 있는 사람’. 힘이 중요한 유목사회를 살아가는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은 하찮게 보였다.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아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축복을 받지 않아도 괜찮았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더 잘 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다.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은 거추장스럽고, 쓸모 없는 것에 불과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가진 것이 너무 많은 에서는 앞으로 받을 은혜를 가벼이 여겼다.

- ‘가벼이 여겼다’는 말은 구약의 다른 본문들에서는 ‘경멸하다’, ‘멸시하다’는 뜻으로 쓰였다.